한국학연구 제68집 | 45~74쪽 | 2023.2.

조선 후기 통신사행과 신공황후 삼한정벌 전승*

-『朝鮮人來朝物語』를 중심으로-

이효원**

〈차 례〉

1. 통신사행렬과 상업출판물
2. 신공황후 전승과 「朝鮮人來朝物語」
3. 『日本書紀』 기사의 변개 양상
4. 신공황후 전승과 18세기 일본인의 조선관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朝鮮人來朝物語』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조선인내조물어』는 통신사가 방문했을 때 구경을 나온 민중에게 판매되었던 상업출판물로 통신사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팜플렛과 같은 문헌이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공황후 삼한정벌 전승을 변개함으로써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둔갑시켰다는 점이 밝혀졌다.

「조선인내조물어」에서 통신사 방문의 역사적 연원을 서술하면서『일본서기』의 기사를 가져오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부연하거나 민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설화적으로 윤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개하였다.『일본서기』의 허구적 역사 서술이『조선내조물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텍스트 변개와 왜곡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설은 '역사적 사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신공황후 전설은 조선 침략의 역사적 근거로 다시 소환되었다. 그것이 빠른 시일에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도시대 내내 통신사 방문을 통해 심어진, 신공황후 정벌 이래 조선은 조공국이었다는 허구적으로 창조된 역사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조선인내조물어, 조선통신사, 일본서기, 신공황후, 삼한정벌, 화한삼재도회

---

* 이 논문은 이 논문은 2022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1. 통신사행렬과 상업출판물

통신사 사행록에는 통신사가 방문하는 도시마다 일본의 민중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몰려와 통신사 행렬을 구경했다는 기록이 자주 보인다. 가령 1719년 사행 때 제술관으로 참여했던 申維翰은 『海游錄』에서 오사카의 항구에 정박했을 때의 구경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구경하였는데, 가까이 앉은 사람들은 강 좌우에 매어 놓은 배를 먼저 차지했는데 자리를 연이어 깔고 앉아 옷깃이 서로 닿을 정도였다. 또 강가의 언덕과 인가의 담장, 다리의 난간에도 인파가 줄지어 앉아 있었는데 자리를 깔고 앉거나 풀을 깔고 앉았으며 화려한 평상에 비단 장막을 치고 술과 차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자리는 은 2전을 내고 빌린 것으로 통신사 행렬과의 거리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고 신유한은 적고 있다.[1] 그런데 신유한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리를 빌려 통신사 행렬을 기다리던 이들의 손에는 이 행렬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팜플렛 같은 서책이 들려 있었다.

에도시대에는 에도, 오사카, 교토 등의 대도시의 성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인 죠카마치(城下町)가 형성되고 마쓰리라 불리는 축제가 도시민이 즐기는 오락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다. 마쓰리는 대개 神輿를 중심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춤을 추는 사람 등이 행렬을 이루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연행된다. 통신사 행렬과 마쓰리 행렬의 유사성은 일반 민중들에게 통신사 행렬을 마쓰리와 유사한 볼거리로 인식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류큐국 사절 행렬과 다이묘들의 參勤交代 행렬 역시 통신사 행렬과 더불어 하나의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쇼군의 襲職 때만 이루어지는 통신사행은 일생에 한 번 보기 쉽지 않은 희소한 볼거리임에는 분명했다. 또한 자릿세를 받고 음식을 파는 등 도시의 상인들에게는 통신사행은 한몫 잡을

1) “聞其地各有主者, 預貨而沽之, 人一坐稅銀二錢, 遠近美惡有差. 時時聞小兒啼娘笑, 笑必持畫紋幌掩口, 琅然而細者, 如鳥音. 其外無一箇橫奔譁譟者. 秋陽逼人, 或以彩巾覆頂, 或戴白圓笠子, 悉靜坐雙跪, 遠立綿視, 各隨地形而高下縱橫焉. 如是者二十里, 簇籟如林, 愈往愈盛, 卽吾目境所接, 亦不勝煩委.”(申維翰, 『海游錄』, 9월 4일, 한국문집총간200, 458쪽)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했다. 상업출판이 번성했던 17세기 중반에 이르면 통신사의 방문에 맞추어 대도시의 출판사들도 일제히 움직였다. 당시 간행된 수백 종의 필담창화집은 통신사 열풍을 출판업자들이 잘 이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2] 그렇지만 필담창화집은 시문 창화가 주된 내용으로 한문 교양을 지닌 지식인이나 죠닌 계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향유될 수밖에 없었다.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기 위해 길가에 나온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상업출판물이 만들어졌다.

출판업자들은 구경꾼들을 위해 통신사를 그린 삽화가 들어가고 통신사의 관직과 이름, 기물의 명칭, 통신사의 연혁 등을 일본어로 수록한 안내서를 대량으로 출판, 판매하였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신사 행렬 안내 출판물'이라 한다.[3] 현재 1682년 7차 사행부터 1811년 12차 사행에 이르기까지 37종의 자료가 확인된다. 통신사 행렬의 개요와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출판물은 한 장 짜리 흑백 혹은 채색 판화로 제작되었으며 대부분 행렬이 지나간 후 버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출판물은 책자의 형태로 제작되어 책대여점에서 대여하거나, 서당의 교과서로 사용하거나, 혹은 개인이 소장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었다.[4]

책자 형태의 출판물 가운데 교토의 菊屋七郎衛兵에서 간행한 『朝鮮人來朝物語』는 1711년부터 통신사행 때마다 판을 거듭하여 일정한 체제로 간행되었으며 통신사 행렬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단순히 객관적 정보만 담고자 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 대한 당대 민중의 시각에

2) 필담창화집의 정리와 번역, 연구는 연세대학교 통신사 필담창화집 연구팀에 의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다. 결과물로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화집 번역총서'가 간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허경진,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학 연구』, 보고사, 2011; 허경진,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화 연구』, 보고사, 2011;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11; 구지현,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장진엽, 『계미통신사 필담의 동아시아적 의미』, 보고사, 2017; 장진엽, 『조선과 일본, 소통을 꿈꾸다』, 민속원, 2022가 있다.

3) 통신사 행렬 안내 출판물에 대해서는 박려옥, 「조선통신사와 에도시대 출판미디어」, 『일본어문학』 94, 일본어문학회, 2021a; 박려옥, 「조선통신사 행렬 안내서 연구-기쿠야판 안내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94,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b에서 그 종류와 서지적 특징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다. 서지적 특징과 일본 내 유통, 향유 양상에 대해서는 이 논문을 참조하였다.

4) 박려옥, 위의 논문(2021b), 111쪽.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헌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성립하였으며, 기존의 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허구적 역사'를 창조해내었으며, 그것이 당대 서민의 통신사에 대한 인식과 조선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5)]

2. 신공황후 삼한정벌 전승과 「朝鮮人來朝物語」

『조선인내조물어』는 판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6)]

	소제목	내용	장수
1	朝鮮人來朝物語序	삼한은 神功皇后에 의해 복속되었으며 조선은 삼한을 통일한 왕조로 연속성을 가진다는 내용	1/2
2	朝鮮人來朝年代記	應神 천황부터 寶曆13년까지 한반도에서 보낸 사절이 방문한 해를 기록	1/2
3	朝鮮人來朝物語[7)]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전승, 삼국의 복속, 임나 정벌, 豐臣秀吉의 조선 정벌과 관련한 내용	5

5) 『조선인내조물어』에 대해서는 箕輪吉次, 「通信使の行列と行列記」, 『일어일문학연구』 72,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여타 행렬기와 함께 소개하였다. 구지현 · 이소나가 가즈키 · 다지마 테쓰오 역, 『조선통신사등성행렬도』, 민속원, 2018에서 1748년 사행의 행렬도와 안내서 몇 종을 번역, 소개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내조물어」 부분은 빠진 1748년 판본을 번역하였으며, 「조선인내조물어」가 수록된 1711년 안내서는 영인만 수록하였다. 박려옥은 『조선인내조물어』 관련 판본을 수집 · 정리하고 서지적 특징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로 서지적인 사항에 집중하였으며 「조선인내조물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문단을 인용하며 통신사가 조공사절로 인식되었다고 지적했을 따름이다. 糟谷政和,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と朝鮮認識」, 『人文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論集』 22, 2017에서는 「조선인내조물어」와 『日本書紀』와의 연관성을 언급하였지만, 유사성을 지적하는데 그쳤을 뿐 그것이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도 『조선인내조물어』의 편찬 의도에 주목하여 변개의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6) 일부 판본에서 삽화가 덧붙여지거나 통신사행의 역사적 연원을 서술한 「朝鮮人來朝物語」 부분이 생략된 경우가 보인다. 본고에서 사용한 저본은 早稻田大學(와세다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1763년 간행 판본이다. 이 자료는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chi12/chi12_03643_0197/index.html)

7) 원문에는 제목이 없으나 서문의 제목, 내용으로 볼 때 '朝鮮人來朝物語'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이 부분을 「조선인내조물어」라고 표기한다.

4	朝鮮人行列次第	통신사 행렬 삽화, 통신사행단의 관직 및 성명, 기물의 명칭, 각 지역의 접대 담당 다이묘의 성명, 통신사가 탄 선박 그림, 헌상품 목록, 조선어 단어 등	18

분량은 25장으로 많은 편은 아니나 좁은 지면에 되도록 많은 정보를 담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줄이되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되도록 많이 제공하려는 고심이 엿보이는 상업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朝鮮人行列次第」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에[8] 여기서는 통신사행의 역사적 연원을 다룬 「朝鮮人來朝物語」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문헌의 편찬 의도가 드러나고, 에도시대 민중이 통신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인내조물어」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은 옛날 고려국,[9] 신라국, 백제국이다. 이 삼국은 옛날에는 三韓이라고 불렀다. 삼국은 모두 국왕이 있다. 서로 공격하여 지위를 다투었으며 우리나라를 따르지 않았고, 또 大唐도 배반하였다. 신공황후가 처음 삼한을 나무라자 일본을 따랐으며 그 후 당나라 고종 황제가 李勣(594~669)[10]이라는 명장을 보내어 고려왕을 조선왕으로 칭했다. 大明의 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를 통일하여 삼국을 모두 조선국이라 명명했다. 옛날에는 삼한이라고 했고 지금은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고대에는 고려를 '코마'라 하고 신라를 '시라기'라 하고 백제를 '쿠다라'라고 불렀다. 그 후 삼한이라고 함은 곧 조선을 말한다. 신라, 고려, 백제는 조선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1]

8) 박려옥, 위의 논문 및 김종민, 「18세기 菊屋版『朝鮮人行列次第』에 대한 고찰」,『조선통신사연구』 33, 조선통신사학회, 2022를 참조할 수 있다.

9) 고구려를 말한다. 이하 백제, 신라와 병칭되는 경우 번역문에서는 고구려로 표기하였다.

10) 이적은 당나라의 장수로 曹州 離狐(지금의 산동성 巢縣 부근) 출신이다. 본명은 徐世勣이며 자는 懋, 시호는 貞武이다. 수나라 말기 군웅 가운데 하나인 李密의 부하였다. 당나라 때 이씨 성을 하사받았으며 당태종의 이름을 휘하여 李勣이라 하였다. 당태종을 도와 竇建德, 王世充 등을 평정하였으며, 630년(貞觀4) 李靖과 함께 돌궐의 본거지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후에 몽골을 지배하고 있던 薛延陀를 격파하였다. 만년에는 당태종을 따라 고구려 원정에 참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1) "朝鮮國むかし乃高麗國新羅國百濟國なり. 此三國をむかしは三韓と稱す. 三國ともに各各國王ありて. たかいひに國をせめ. 位をあらそいて. 我朝へもしたかわず. 又大唐もそむきしに. 神功皇后始て三韓を責て日本へしたがへ給ふ. 其後唐高宗皇帝李責といへる名將を遣し高麗を責したかへかうらい王を朝鮮王

고구려를 '고려'라고 지칭하는 것은 일본 근세 문헌에 널리 보이는 현상이다. 조선을 고려라고 칭하기도 하는 등 한반도에 성립한 국가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였다. '三韓'이라는 말도 여기에서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근세 일본에서는 조선을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다. 또 『조선인내조물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원래 신라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인 '계림'도 한반도, 곧 당대의 조선을 가리키는 말로 근세 일본에서 자주 쓰였으며 근대 문헌에도 '삼한', '계림', '고구려', '고려' 등의 용어가 보인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삼국시대와 밀접한 관련 아래 형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삼국은 어떤 나라인가? 신공황후가 꾸짖자 일본에 복종했으며, 훗날 당나라 고종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내려준 나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주변 강대국에 국운이 좌우 되는 자주성이 결여된 나라라는 것이다. 이어서 "삼한이라고 함은 곧 조선을 말한다"라고 하여, 신공황후 시대에 일본에 복속된 삼한이 곧 에도시대에 통신사를 파견한 조선과 동일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민중에게 조선이 삼한과 동일한 역사적 계통을 지닌 나라이며 연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통신사는 일본에 '來朝'하러 온 사절단에 다름 아니게 된다. 이 서문은 짧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에 문제적이다. 이런 시각은 다음에 살펴볼 「조선인내조물어」에서 구체화된 형태로 드러난다.

서문의 다음에 수록된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통신사 방문의 역사적 연원을 삼국시대 일본과 신라의 관계로까지 끌어 올려 서술하고 있다.

14대 츄아이(仲哀) 천황 시대에 서쪽의 쿠마소(熊襲)가 반란을 일으키자 천황이 직접 토벌에 나섰다. 그때 신공황후가 신탁을 받았는데, 쿠마소는 작

と號す大明の代ニ高麗新羅百濟皆一統して三國をすべて朝鮮國と名づく. むかしは三韓といひ. 今は朝鮮と稱す是なり. 又いにしへは高麗をこまといひ. 新羅をしらぎといひ百濟をくだらといひけるとなん. 此後に三韓といふは則てうせんなり. 新羅高麗はくさいといふはてうせんの內としるへし."(「조선인내조물어序」, 『조선인내조물어』; 이하 인용문은 糟谷政和의 연구를 참조하여 필자가 탈초, 개행, 번역한 것이다.)

은 나라이니 내버려두고 신라를 공격하여 복종시키면 오래도록 태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츄아이 천황이 병이 나서 정벌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황후를 불러 신라를 정벌한 후 태내의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당부하고 숨을 거두었다. 신공황후는 천황의 죽음을 숨기고 서둘러 쿠마소를 평정한 후 신라 정벌에 나서고자 했다.

신공황후는 신탁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점을 쳤다. 마츠라(松浦)의 강변에서 정벌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낚시 바늘을 던지자 큰 은어가 낚시에 걸렸다. 또 카시이노우라(橿日浦)에서 계시를 생각하며 머리카락을 흐르는 바닷물에 씻었더니 머리카락이 생각한 대로 남쪽으로 흘렀다. 이에 신공황후는 신라를 정벌할 결심을 하고 남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신라 정벌의 칙령을 내렸으며 스스로 돌을 허리에 차고 태내의 황자가 정벌이 끝나고 돌아온 후에 태어날 것을 기도했다.

와니(和珥)에서 출선할 때 바다가 몹시 거칠었는데 큰 물고기와 이무기, 용이 나와 배를 수호하였다. 신라왕은 일본의 神軍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고 신하가 되었다. 신공황후가 신라왕을 살려주니 인질을 바치고 매해 80척의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도 일본의 군세를 보고 두려워하여 몸소 황후의 진영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빌며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

삼한을 모두 평정한 후 황후는 조정에 돌아왔는데, 이때 위나라 문제가 張政을 보내어 경사를 축하였다. 이 무렵 황자가 태어났으며 훗날 오진(應神) 천황이 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른바 '신공황후 삼한정벌 전승'과 거의 똑같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신공황후 전설은 『古事記』, 『日本書紀』, 고대의 地方誌인 風土記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본서기』의 서술이 「조선인내조물어」와 가장 유사하다. 정확히는 『일본서기』 권8 츄아이(仲哀) 천황 2년 3월 15일 조의 내용이다.[12]

12) 이외에도 「조선인내조물어」의 내용은 대부분 『일본서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에도시대에 출판된 신공황후 관련 문헌과의 연관성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역시 근본적

신공황후 설화는 고대에 형성된 전설인데 일본이 신라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8세기 초에 편찬된『일본서기』에 수록되면서 역사적 사실로 재창조 되었다. 당시 일본은 정권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였는데 대내적으로 신라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내부적인 결속을 도모하고자 했다.『일본서기』는 이런 목적에서 신공황후 전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다시 말해『일본서기』의 신공황후 관련 기사에는 기존의 전설을 역사서에 수록하되 편집과 가공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만들고자 했던 편찬자의 의도가 짙게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수록된 신공황후 기사에서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신라정벌의 근거가 神勅에 있다는 점이다. 신라왕이 일본의 신군을 두려워하여 戰意를 잃고 스스로 복속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신라가 복속하자 고구려와 백제도 함께 복속하여 이른바 內官家가 되었다는 삼한복속 설화이다. 당시 일본은 백제의 편에 서서 한반도의 군사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계, 고구려계 유민이 일본에 이주했던 현실적 상황이 삼국복속론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라가 '財寶國'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신라가 재보국이기에 정벌해야 한다는 신탁은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생략되어 있다.[13]

넷째,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 이후 태어난 오진 천황에 대한 신앙관이 확인된다. 후에 무사들의 신앙의 대상이 된 하치만(八幡) 신앙은 오진 천황을 祭神으로 삼는데, 이것은 신공황후가 태중에 신라를 정벌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神國이라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자국우월의식이 이 설화의 배

으로는『일본서기』에 근거를 두고 성립하였다.『일본서기』를 비롯하여『八幡愚童訓』,『太平記』, 사찰연기,『大日本史』, 마쓰리 관련 출판물 등 근세의 다양한 문헌을 통해 신공황후 전승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선구적인 연구로 塚本明,「神功皇后傳說と近世日本の朝鮮觀」,『史林』79卷 6號, 1996이 있다. 본고도 이 논문에 시사 받은 바가 크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조선인내조물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13)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한다.

경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14] 「조선인내조물어」에도 신라를 정벌하고 돌아온 황후가 오진 천황을 낳았다고 하며, "이 황후를 신공황후라 부르고 황자를 오진 천황이라 부르며 모시니, 하치만구(八幡宮)가 이것이다"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15] 『조선인내조물어』의 편찬자 역시 에도시대 일본인의 주요 신앙의 대상이었던 하치만 신이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설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황후 설화에서 시작된 삼국복속 사상은 『일본서기』 전반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후대 기사에서도 종종 보이는 삼한의 조공사절과 관련한 기사는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요컨대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일본 조정은 내정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에 당면했다. 701년에 제정한 대보율령에서 신라를 일본의 번국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를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기사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위해 신라를 적대시하고 복속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백제와 고구려 유민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삼국복속이라는 자국 중심의 담론을 만들어낸 것이다.[16]

신공황후 전설은 카마쿠라(鎌倉)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11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몽골의 일본 침공 때 카마쿠라 막부는 신공황후를 국가 수호의 신으로 추앙하며 일본을 신국화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다. 몽고 침략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4세기 경에 성립했다고 전해지는 『八幡愚童訓』에는 신공황후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神力을 발휘하여 대군을 이끌고 온 외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슬을 던져 간조를 만들고 적이 상륙하자 다시 만조를 만들어 수장시켰다고 하는 등 신공황후의 神德을 강조하고 있다. 신공황후 전설과 당대 몽골 침략의 경험이 결부되면서 신라와 고려는 시대를 초월하여 혼재된 형태로 나

14) 이상 신공황후 설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연민수, 「神功皇后 전설과 日本人의 對韓觀」,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을 참조.

15) "三韓ことごとくたいらぎぬれば大矢田の宿禰と言人を新羅國にとじめ置て鎭守將軍となり三韓を下知せしめ皇后は歸朝し給ふ。 此ときもろこし魏の文帝より張政といへるものを使者として皇后歸朝の目出度事を賀し奉る. 皇后筑紫へかへり皇子誕生し給う. 此后を神功皇后と申皇子を應神天皇と申奉八幡宮これなり."(『조선인내조물어』, 3a)

16) 연민수, 위의 논문, 5~9쪽 참조.

타난다. 한편 신공황후의 아들인 오진 천황을 제사하는 하치만 신사(八幡神社)는 하치만 신앙의 침투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 건립되었는데, 이들 사원의 연기 설화는 대부분 이 『팔번우동훈』과 유사한 신공황후 설화를 포함하고 있다.[17]

근세에 들어와서도 신공황후 설화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며 일본인의 조선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전기로 알려진 「太閤軍記物語」에는 시데요시가 전열을 배치하는 장면에서 『팔번우동훈』의 신공황후 설화와 유사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18]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에 나설 무렵 그 신하가 신공황후 설화가 기록된 사원 연기를 바쳤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 히데요시는 1592년 3월말 경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인 나고야(名護屋)로 향하던 중 長門國에서 츄아이 천황과 신공황후의 신사를 참배하여 정벌의 의지를 다짐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사츠마(薩摩) 시마즈 가문(島津)에 전해지는 『征韓錄』에 의하면 나고야 성에 주둔한 일본군은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을 상기하며 전의를 고양하기도 했다.[19] 이외에도 『繪本三韓軍記』, 『神功皇后三韓退治圖解』, 『大友眞鳥實記』, 『大伴金道忠孝圖繪』 등 에도시대에 출판되어 인기를 끌었던 에혼요미혼(繪本讀本: 삽화가 들어간 대중소설)에도 신공황후 설화는 변형된 형태로 수록되어 널리 읽혔다.[20] 당대 일본의 서민들에게 신공황후 설화는 신앙의 형태로, 또는 구전으로, 혹은 오락물의 형태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조선인내조물어」에서 통신사행의 역사적 연원을 서술하면서 고대의 신공황후 설화에서 시작한 것은 신공황후의 신라정벌 및 삼한복속과 관련한 이야기가 당대의 서민들에게 몹시 친숙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대 민중들은 자연히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

17) 연민수, 위의 논문, 16쪽 참조.
18) 연민수, 위의 논문, 17쪽 참조.
19) 연민수, 위의 논문, 17~18쪽 참조.
20) 김시덕, 『일본의 대외전쟁』, 열린책들, 2016, 355~387쪽을 참조.

3.『日本書紀』기사의 변개 양상

「조선인내조물어」에 수록된 신공황후 설화와 삼한복속담은『일본서기』을 참조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윤색을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허구적으로 변개한 부분이 보인다. 이 장에서는『일본서기』와 비교하여 변개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서사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라 정벌의 정당성 고취

『일본서기』에서는 신라가 금은보화가 가득한 '재보국'이기 때문에 정벌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이 대목이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일본서기』에 기록된 신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공황후가 접신하여 츄아이 천황에게 신라를 정벌할 것을 권유하는 대목이다.

> "천황은 어찌 쿠마소가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는가. 그곳은 힘없고 쓸모없는 나라이니 어찌 군대를 일으켜 칠만 하겠는가. 이 나라보다 더욱 보물이 많은 나라가 있으니 처녀의 눈썹과 같고, 나루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이다. 눈부신 금과 은, 비단이 그 나라에 많이 있으니, 그 나라를 杼衾新羅國이라고 한다. 만약 나에게 제사를 잘 지낸다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그 나라가 반드시 스스로 항복해 올 것이며, 또 쿠마소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21]

神託은 척박한 지역 대신 재물이 많은 나라를 공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이 부분이 "쿠마소는 그냥 놔두고 서둘러 신라국을 공격하여 복종시킨다면 오래도록 이 나라의 신하가 되어 태평한

---

21) "天皇何憂熊襲之不服. 是膂完之空國也, 豈足擧兵伐乎. 愈茲國而有寶國, 譬如處女之睩, 有向津國. 眼炎之金銀彩色多在其國, 是謂栲衾新羅國焉. 若能祭吾者, 則曾不血刃, 其國必自服矣."(『日本書紀』 권8, 仲哀 8년 9월 5일조)

시대의 기반이 될 것"[22]이라고 되어 있다.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신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개한 이유는 아무리 신탁이라고는 하지만 단지 재보를 탐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라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도 막부가 성립한 후 태평성대가 10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며 유교적 교양도 비교적 널리 보급된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금은보화를 약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은 일반 대중들도 그 정당성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츄아이 천황이 죽어가면서 신공황후에게 신라를 정벌할 것을 당부하는 장면이다.

> 천황께서 병이 나셔서 進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자, 황후를 가까이 불러 말씀하시기를, "짐의 병이 무거워 끝내 나을 수 없소. 내가 죽은 후에는 그대가 몸소 三種[23]을 지니고 사해에 정치를 행하고 태내의 왕자가 탄생한 후에는 정성스럽게 길러서 만세의 법을 세워 오래도록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오. 그대는 여인이지만 그 덕이 오히려 짐보다 낫소. 또 태내의 왕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붕어하셨다.[24]

츄아이 천황이 죽음을 예감하고 황후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자못 비장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천황의 이 유언이 보이지 않는다. 이 대목은 『일본서기』에서 신이 츄아이 천황을 꾸짖는 대목에 유언을 삽입하여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를 보면 츄아이 천황은 신탁에 의심을 품고 산에 올라, "제가 두루 살펴보았으나 바다만 있고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찌 텅 빈 곳에 나라가 있겠습니까? 어떤

22) "熊襲をさしをきいそぎ新羅國を責したがへ給ははながく此國の下臣となりて太平の基たらんとの給ふ." (「조선인내조물어」, 1a)

23) 三種: 천황임을 증명하는 세 가지 神器, 곧 八咫鏡, 天叢雲剣, 八坂瓊曲玉를 말한다.

24) "天皇不例にして御進罰もかなひがたく后をちかづけの給ふやう朕病おもふしてついにいゆる事あるべからず朕いかにもなりたらん. 後は御身みづから三種を帶し四海の政をしめしめ胎内の王子誕生の後念頃にもりたて萬世の法をたてながく寶祚を垂玉へただ人にあるべからずとの給ひ終に崩御ならせ玉ひしかば."(「조선인내조물어」, 1a~1b)

신이시길래 헛되이 저를 유혹하는 것입니까?"라고 신에게 고한다. 그러자 신이 황후에게 접신하여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를 엎드려 보듯이 내가 본 나라인데 어찌 없다고 하며 내 말을 비방하느냐. 그대 왕이여. 이렇게 말하고 끝내 믿지 않으니 너는 그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황후가 마침 태기가 있으니 그 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25]라고 꾸짖는다.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이 대목을 삭제하고 츄아이 천황의 유언을 삽입하였다. 『일본서기』에는 천황이 신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쿠마소 정벌에 실패하고 갑자기 죽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실을 삭제하고 오히려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비장함을 증폭시키고, 츄아이 천황의 뜻을 신공황후가 충실하게 계승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훗날 이루어질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 정벌이라는 신의 계시가 츄아이 천황에 의해 한 번 좌절되었지만 신공황후가 오진 천황을 임신하고서도 끝내 이를 이룩해 낸다는 역경 극복의 서사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일본서기』에서는 신의 계시를 의심한 츄아이 천황이 신의 벌을 받아 죽고 신공황후가 대신 신의 뜻을 실현시킨다는 서사 구조인데 반해,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츄아이 천황과 신공황후가 애초에 신의 계시를 받아들여 신라 정벌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천황의 죽음으로 한 번 좌절되었지만 신공황후가 이를 극복하여 신의 계시를 실현시킨다는 쪽으로 변개되었다. 그리고 오진 천황이라는 비범한 인물이 탄생하여 삼한 복속을 완성할 것을 암시한다. 삼한정벌을 신의 계시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 텍스트의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조선인내조물어』가 『일본서기』에 비해 정벌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한층 부각시키는 쪽으로 변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서사는 하치만 신앙에 익숙한 당대인들에게도 친숙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

25) "天皇對神曰: '朕周望之, 有海無國, 豈於大虛有國乎? 誰神徒誘朕? 復我皇祖諸天皇等盡祭神祇, 豈有遺神耶?' 時神亦託皇后曰: '如天津水影押伏而我所見國, 何謂無國. 以誹謗我言, 其汝王之, 如此言而, 遂不信者, 汝不得其國. 唯今皇后始之有胎, 其子有獲焉.'"(『日本書紀』 권8, 仲哀 8년 9월 5일조)

2) 중국 역사서의 차용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이 신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제대로 된 전투도 없이 신덕의 힘으로 삼한이 복속했다는 점은 아무래도 역사적 사실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선인내조물어」의 저자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기 위해 중국의 역사 기록을 차용하였다.

> 삼한을 모두 평정하였으므로 오야다노 쓰쿠네(大矢田宿禰)[26]라는 사람을 신라국에 남겨 鎭守將軍으로 삼아 삼한을 다스리게 한 후 황후는 조정에 돌아오셨다. 이때 옛날 魏의 文帝가 張政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삼아 황후가 조정에 돌아온 경사를 축하하였다. 황후께서 츠쿠시(筑紫: 지금의 후쿠오카 일대)에 돌아가셨고 황자께서 탄생하셨다. 이 황후를 신공황후라 부르고 황자를 應神天皇이라 부르며 모시니, 하치만구(八幡宮)가 이것이다. 황후가 이로부터 豊浦의 궁에 들어가시어 츄아이 천황의 상을 치루셨다.[27]

여기서 위나라 문제(재위: 220~226)가 삼한정벌을 축하하는 사절을 보냈다는 내용은 『일본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공황후 39년 조에 "『魏志』에 明帝 景初 3년(239) 6월에 왜의 여왕이 大夫 難斗米 등을 보냈다"는 기사가 보이고, 40년 조에는 "『위지』에 正始 원년(240)에 建忠校尉 梯携[28] 등을 보내 조서와 인수를 받들고 왜국에 가게 했다고 한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이처럼 『일본서기』 신공황후 39년 조부터 43년 조까지를 보면 『三國志』

---

26) 오야다노 츠쿠네는 신공황후를 따라 신라에 간 후 鎭守將軍이 되어 신라의 공주 猶榻과 결혼하였다. 헤이안 초기인 815년에 편찬된 『新撰姓氏錄』 右京皇別眞野臣 조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일본서기』에는 大矢田宿禰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신공황후 조에 '一書曰'이라고 하여 신공황후가 신라를 복속한 후 한 사람을 남겨 신라의 宰로 삼았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이 大矢田宿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7) "三韓ことごとくたいらぎぬれば大矢田の宿禰と言人を新羅國にとじめ置て鎭守將軍となり三韓を下知せしめ皇后は歸朝し給ふ. 此ときもろこし魏の文帝より張政といへるものを使者として皇后歸朝の目出度事を賀し奉る. 皇后筑紫へかへり皇子誕生し給う. 此后を神功皇后と申皇子を應神天皇と申奉八幡宮これなり. 皇后それより豊浦の宮へ入りたまひ仲哀の喪をおさめ玉ふ."(『조선인내조물어』, 3a)

28) 『삼국지』에는 '梯儁'으로 되어 있다.

魏書「東夷傳」倭人 조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張政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기사는 인용하지 않았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왜인 조에는, 정시 8년(247)에 張政에게 詔書와 黃幢을 들려 왜의 여왕 히미코(卑彌呼)에게 보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히미코가 拘奴國의 왕과 분쟁을 일으키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보낸 사신이었다. 『일본서기』에서는 히미코를 신공황후와 동일 인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조선인내조물어」에서 말하는 장정이란 『삼국지』의 장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위나라 문제 재위년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신공황후를 축하하기 위해 온 사신도 아니다. 『조선인내조물어』의 편자는 『일본서기』와 『삼국지』의 기사를 차용하여 배합함으로써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역사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중국 사서의 권위를 빌려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을 마치 중국의 왕조도 승인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삼한복속을 염두에 둔 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일본서기』의 기사를 '역사적 사실'에 가깝도록 변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언급한 하치만구 신사는 오진 천황을 주신으로 하고 신공황후와 히메가미(比賣神) 혹은 츄아이 천황을 함께 배사하기도 한다. 천황가의 祖神을 모시는 신사로 시작하여, 후대에 점차 무사, 서민층에까지 分社와 末社가 생겨났으며 武神을 모신 신사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신사라고도 할 수 있는 하치만구 신사가 삼한정벌이라는 허구적 전승을 기원 설화로 두고 있다는 것은 에도시대 통신사에 대한 인식,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지점이다. 무가사회의 지배층과 민중들의 무의식 속에 공히 한반도 복속 신화가 각인되어 있었는데, 『조선인내조물어』의 편자는 여기서 이 점을 슬쩍 언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실'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도 역사를 차용하되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 한편 옛날에 吳王 孫權이라는 자가 일본을 침략하고자 수백 기의 군사를 보냈는데 일본의 바다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時風이 세차게 불어와 모두 날려버려 죽은

> 자들이 셀 수 없었다. 이것이 神國의 威德으로 서남쪽의 여러 이국인이 일본에 복종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전 시대에도 이국인의 내조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삼한이 모두 이때부터 우리 조정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조선인의 來朝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로 삼한에 전쟁이 있으면 사신을 보내어 진압하시거나 혹 구원병을 보내서 무도함을 없애버리셨다.[29]

오나라 손권(182~252)이 일본을 침략했다가 폭풍우로 인해 실패했다는 내용은 『일본서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대목은 몽고의 침략을 막아주었다고 믿었던 이른바 가미카제(神風) 전승을 변개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팔번우동훈』의 신공황후 설화가 몽고 침략과 결합한 것과 유사한 서사적 변개라 할 수 있다. 신의 계시를 받아 타국을 정벌하는 일본, 신의 가호로 인해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 일본이라는 관념이 '신국의 위덕'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국이 일본을 두려워하며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한이 일본에 복종하는 것이 신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대 조선이 내조하는 이유도 역시 신의 뜻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신공황후가 신탁을 받아 신라를 정벌했다는 이야기와도 호응한다. 삼한과 고려가 시대를 초월하여 혼재되어 서술되면서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신공황후 정벌 이래 일본이 삼국의 분쟁에 자주 개입하여 사신을 보내거나 구원병을 보냈다고 했다. 이는 이 글의 마지막에서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요컨대 일본의 정벌은 신의 뜻이며 삼한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일본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정당화의 논리가 「조선인내조물어」 전반에 걸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29) "所にもろこし吳王孫權といふもの日本をせめんと數百騎の軍兵を渡すといへども日本の海上へいたるといなや卒爾に時風はげしく起りことごとくふきはなされて死ぬるもの數をしらず. これ神國の威德たりと西南もろもろの異國人日本をしたがひおそれずといふ事なし. 是より前代にも異國人來朝の事ありといへども三かんことごとく此時より我朝へしたがふによりて朝鮮人來朝は此御時をはじめとするなり. 此後は三韓に軍あれば使者をちかひて是をしづめ給ひ或は加勢をつかはして無道なりをほろぼし給ふ."(『조선인내조물어』, 3a~3b)

임나 정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관철된다.

> 人王 29대 宣化天皇의 치세에 任那라는 나라가 신라를 침략하였다고 알려오자 오오토모노 사데히코(大伴狹手彦)를 대장으로 삼아 임나를 정벌하셨는데, 임나국도 항복하여 일본에 복종하였다. 임나국 사람이 崇神天皇의 시대에 에치젠(越前)의 츠누가(角鹿)의 津에 왔는데, 그 사람의 이마에 뿔[角]이 있었다는 말이 전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쿠리코쿠리'라는 나라가 이것이다.[30]

임나와 관련한 기사는『일본서기』센카(宣化) 천황 2년 10월 1일 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때 천황은 신라가 임나를 침략하였으므로 오무라지(大連) 오토모노 카나무라(大伴金村) 에게 명하여 그 아들 이하(磐)와 사데히코(狹手彦)를 보내 임나를 돕게 하였다. 이때 이하는 筑紫에 머물며 국정을 장악하여 삼한에 대비하였으며, 사데히코는 가서 임나를 평정하고 또 백제를 구원하였다."[31]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역사학계의 정설은 오토모노 카나무라가 신라 원정에 실패하였으며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하려 했으나 오히려 침공을 당하였으며, 킨메이(欽明) 천황 1년(540)에 대외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일본서기』스이닌(垂仁) 천황 2년 2월 9일 조에 "스진(崇神) 천황 시대에 이마에 뿔이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코시노쿠니(越國: 지금의 福井縣 敦賀市 氣比神社 부근)의 케히우라(笥飯浦)에 정박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츠누가(角鹿)라고 이름하였다"[32]라고 하여 인용문과 유사한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처럼 '무쿠리코쿠리'가 임나국 사람이라는 기사는『일본서기』에 보이지 않는다. '무쿠리'는 몽고를, '코쿠리'는 고려를 가리키

30) "人王廿九代宣化天皇の御宇に任那といふ國より新羅を責るよし告来るにより大伴の狹手彦を大將として任那を伐せ給ひしかば任那國も又降參して日本にしたがう. 任那國の人崇神天皇の御時に越前の角鹿の津に來りけるに其人ひたいに角有といひつたへたり. 世にいへるむくりこくりの國なるべし."(『조선인내조물어』, 3b)

31) "二年冬十月壬辰朔, 天皇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彦, 以助任那. 是時磐留筑紫, 執其國政, 以備三韓. 狹手彦往鎭任那, 加救百濟."(『日本書紀』 권18)

32) "一云: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泊于越國笥飯浦, 故號其處曰角鹿也."(『日本書紀』 권6)

는 말로, 13세기 말에 여몽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했을 당시 일본에서 '무쿠리코쿠리의 귀신이 온다'고 하여 우는 아이를 그치게 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 역시 민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뿔이 달린 사람이 왔다는 허황된 기사에 전혀 상관없는 몽고 침공이라는 후대의 사건을 견강부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데히코가 정벌한 임나가 괴물 같은 사람이 사는 미개한 지역이며 언제든 일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설화적 윤색

앞서 검토한 것처럼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허구적 전설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한 상업출판물답게 설화적 윤색을 통해 흥미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임나를 정벌했다는 사데히코의 이야기에 이어서 사요히메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 사데히코가 일본 카츠라(松浦)에서 출선할 때 평소 총애하던 사요히메(佐用姬)라는 여성이 이별을 슬퍼하여 산에 올라 사데히코의 배를 멀리 전송하였는데 노래를 부르며 손수건을 흔들다가 죽었다. 이로 인해 이곳을 '히레후리 산'이라 이름하고, 사요히메의 신사[33]를 세우고 지금까지 모시고 있다. 또 사요히메가 손수건을 흔드는 모습을 한 채로 바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다. 그 亡魂이 신라에 건너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요히메의 일은 이국인에게 익히 전해져 지금도 물어본다고 한다.[34]

사데히코와 관련된 마츠라 사요히메(松浦佐用姬) 전설이다. 중국과 한국

33) 지금의 九州 東松浦郡 呼子町 加部島에 있는 田島神社를 말한다. 『佐用姬神社社記』, 『佐用姬神社社記別記』에 사요히메가 망부석이 되었다는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34) "狹手彦日本松浦かたより出舩の時に日頃てうあいせし佐用姬といへる女わかれをおしみ山にのぼり狹手彦の舟をはるかに見おくり歌をよみて其所にひれふしむなしくなりたるにより, 此所をひれふる山と名づけ佐用姬の社をたて今に迄をまつる. 又佐用姬のひれふしたるかたち石となり今にあり. その亡魂新羅へ渡るといひ傳へ侍り佐用姬の事異國人もよく聞つたへ今に尋ね傳るとかや."(『조선인내조물어』, 3a~4a)

에도 존재하는 망부석 설화와 유사한 이 전설은 『일본서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肥前風土記』와 『萬葉集』에 유사한 이야기와 노래가 전한다.[35] 이외에도 『平家物語』, 『曾我物語』와 같은 모노가타리(物語)나 『和漢朗詠集』, 『梵灯庵主袖下集』과 같은 시집에도 등장하는 널리 알려진 설화이다. 1808년에 간행된 쿄쿠테이 바킨(曲亭馬琴, 1767~1848)의 『松浦佐用姫石魂錄』에는 사요히메가 손수건을 흔들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바킨은 당대 가장 유명한 요미혼(讀本: 소설) 작가였으므로 사요히메 설화는 당대인들에게 몹시 익숙한 이야기였을 터이다.

사요히메 설화는 앞의 사데히코의 임나정벌 기사와 설화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독자들에게 임나정벌을 거듭 상기시킨다. 일본에 위협이 되는 야만적인 나라를 신의 뜻에 따라 정벌하러 떠난다는 영웅담과 이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가련한 여인이 대비되면서 비장함을 불러일으킨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설화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 그 후 欽明天皇의 치세에 신라와 고구려가 하나가 되어 백제, 임나를 공격하려 했다. 일본에서 카시하데노 오미하스히(膳臣巴提便)라고 하는 자를 대장군으로 삼아 백제, 임나에 가세하도록 하였는데, 신라와 고구려에서는 기르던 호랑이를 내보내서 공격했다. 카와데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달려오는 호랑이를 좁은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혹은 호랑이에 훌쩍 올라타서 찔러 죽이거나 목졸라 죽였다. 이것을 본 이국인들이 크게 놀라 마침내 일본에 귀복하였다.[36]

이 이야기의 원형이라 생각되는 기사가 『일본서기』 킨메이(欽明) 천황 6년 3월 조에 보인다. 그런데 인용문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서기』를 보면 오

35) 『만엽집』 권5에 題詞로 설화를 간략히 서술하고 노래를 수록하였다: "遠つ人松浦佐用姫夫恋に領巾振りしより負へる山の名."(멀리 떠난 사람 기다리는 마츠라 사요히메, 님이 그리워 옷을 흔든 데서 따온 산 이름). 여기에 화답한 노래 4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36) "其後欽明天皇の御宇に新羅高麗ひとつになりて百濟任那を責ければ, 日本より膳臣巴提使といへるものを大將として百濟任那の加勢につかはされけるに, 新羅高麗より手かいの虎を出しけしかけかけせめたたかふ. 膳手すこしもおどろかず向来る虎の細くひ中にうちおとし, 或は虎にひらりと打乗りさしころしめころし見せたれば, 異國人おほきにおどろきいよいよ日本に歸服す."(『조선인내조물어』, 4a~4b)

미하스히는 3월에 백제에 사신으로 갔다가 11월에 돌아와 대략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사신으로 파견될 때 처자가 함께 갔는데 도착한 날 백제의 해안가에 머물렀다. 그날 밤 큰 눈이 내렸는데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새벽녘에 찾아 나서니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 무장을 하고 발자국을 따라가자 호랑이 굴에 이르렀다. 그는 '삼가 天則을 받들어 육지와 바다를 비바람을 맞으며 고생하며 나아가, 풀을 베개 삼고 가시를 깔고 잤던 것은 자식을 사랑하여 아비의 업을 잇게 하고자 한 것이었다. 생각건대 네가 위엄있는 신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오늘 밤 아이가 없어져서 추적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목숨을 잃는 것을 겁내지 않고 원수를 갚으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호랑이가 달려들자 왼손을 뻗어 호랑이 혀를 잡고 오른손으로 찔러 죽이고 가죽을 벗겨 돌아왔다.[37]

오미하스히가 아들을 잡아먹은 호랑이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인데, 신라나 고구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무렵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킨메이 천황 조에는 백제가 일본에 군사를 요청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이런 역사적 상황과 호랑이 퇴치담을 『조선인내조물어』의 편자가 뒤섞어 가공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식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와 홀로 싸운 것만으로도 오미하스히의 용맹은 충분히 전달된다. 그러나 그 호랑이가 신라와 고구려에서 기르던 전투용 호랑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용맹함이 아니라 외적을 물리친 비범한 무사의 공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호랑이를 구덩이에 빠뜨리거나 등에 올라탔다고 하는 등 설화적인 필치는 오미하스히의 영웅적인 지략과 용맹함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데히코는 반란을 꾀하는 고구려를 응징하였다는 대목이 이어지는데, 조선에서 사데히코를 두려워하여 '오니히코'라고 부르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다.[38] '오니'는 도깨비, 귀신이라는 뜻이다. 『일본서기』

37) "膳臣巴提便, 還自百濟言, 臣被遣使, 妻子相逐去. 行至百濟濱[濱海濱也.], 日晩停宿. 小兒忽亡, 不知所之. 其夜大雪. 天曉始求, 有虎連跡. 臣乃帶刀擐甲, 尋至巖岫. 拔刀曰: '敬受絲綸, 劬勞陸海, 櫛風沐雨, 藉草班荊者, 爲愛其子, 令紹父業也. 惟汝威神, 愛子一也. 今夜兒亡. 追蹤覓至. 不畏亡命, 欲報故來.' 旣而其虎進前, 開口欲噬. 巴提便, 忽申左手, 執其虎舌, 右手刺殺, 剝取皮還."(『日本書紀』 권19)

에는 켄메이 천황 23년(562) 8월 조에 사데히코가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격파하자 고구려 왕이 담을 넘어 도망갔고, 사데히코는 왕궁에 들어가 보물과 七織帳과 鐵屋, 갑옷, 금으로 장식한 칼, 구리종 등을 빼앗아 돌아왔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 고구려 침공 기사는 大伴氏의 家傳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씨족의 무훈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39]

사실 사데히코는『일본서기』에 단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앞서 검토한 센카 천황 2년 조와 이 켄메이 천황의 기사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비중이 큰 인물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인내조물어」에서는 영웅적인 용맹함을 보이며 임나를 복속시키고 백제를 구원하고 고구려를 평정하였으며, '오니 히코'라는 별명을 얻으며 조선인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인물로 과장되게 그려지고 있다.

> 이때 백제왕인 사신을 보내어 丈六의 불상과 불경을 바쳤다. 이것이 우리 조정의 불법의 시작이다. 또 비다쓰(敏達) 천황 때 일본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고구려에서 까마귀의 깃털에 문자를 써서 보내 왔지만 검게 칠해서 알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을 곧 밥 위에 올려 쪄서 종이를 가지고 까마귀의 깃 위에 놓자 문자가 모두 종이에 묻었다. 이것을 읽으니 이국인들이 모두 우리 조정의 사람이 智勇을 겸비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40]

까마귀와 관련한 이 일화는『일본서기』비다쓰 천황 원년 5월 15일 조에 거의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천황이 고구려에서 보내 온 국서를 大臣

38) "しかれどもかうらいややもすれば, 異儀に及ぶ事ありしかば, また狹手彦を大將としてかうらいを攻玉ふ. 狹手彦無二無三に高麗の王宮へ亂入してせめ戰ければ, 高らい王かなはず俄にまぬかれ出て逃去, 國の繪圖幷數多の寶物をとりて天皇にささげ奉る. それよりて其頃狹手彦の事を朝鮮にては鬼彦と名付けて恐れおののきたるとかや."(「조선인내조물어」, 4b)

39) 연민수 외 역,『역주 일본서기』2, 동북아역사재단, 2013, 398쪽.

40) "此時百濟王使者を獻じて丈六の佛像幷佛經を奉る. 是我朝にて佛法の始なり. 又敏達天皇の御時日本の智恵を計らんとて高麗より烏の羽に文字をかきて送りけるに黑くして見わくへき樣なかりしを則飯の上に置て是をむして紙を持てからすの羽のうへをおしたれば, 文字ことごとく紙にうつりて是をよむにより異國人皆我が朝の人智勇をかねたる事を大きにかんじけるとなり."(『조선인내조물어』, 4b~5a)

들에게 주어 여러 후비토(史)를 불러 해독하게 하였다. 후비토는 한문 구사 능력을 지닌 관직으로 대개 한반도 계통의 사람이 맡았다.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해독하지 못하였는데, 王辰爾라는 사람이 밥의 증기로 찐 후 비단에 눌러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서기』의 이 내용은 원래 비밀스러운 문서라는 의미가 전승 과정에서 설화적으로 변개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인내조물어」에서도 이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일본이 무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뛰어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조선인내조물어」는 마지막으로 신라의 반란을 진압한 일과 토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조선 침략을 연결시키면서 끝맺는다.

> 이로부터 3백여 년이 지나도록 삼한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인왕 59대 우다(宇多) 천황 때 또 처음으로 신라국이 모반을 일으켜 수백 척의 병선을 이끌고 쓰시마에 이르렀다. 筑前의 태수 훈야노 요시토모(文屋善友)를 대장으로 삼아 쓰시마에 보내어 토벌하게 하니, 이국인 수백 기를 공격하여 죽이고, 나머지는 武具와 馬具, 배 등을 빼앗고 신라에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고 놓아주었다. 이로부터 삼한이 어떤 때는 배반하고 어떤 때는 따르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배반하면서 공물을 게을리해도 여기에 대해 죄를 묻지 않았다.
>
> 文祿 원년 太閤 秀吉公이 몸소 名護屋까지 나아가 肥後 태수 加籐清正, 攝津 태수 小西行長을 대장으로 삼아 조선을 쳐부수고 길이 일본의 종으로 삼으셨다. 처음에는 또 매년 공물을 바쳤는데 점차 죄를 용서하여, 우리 조정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來朝하게 되었던 것이다. 慶長 시기(임진왜란 직후-인용자)보다 특히 더 성대하고 아름답게 공물을 바치기를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41]

41) “是より後三百餘年のうち三韓異儀なかりしが, 人王五十九代宇多天皇の御時又はじめて新羅國謀反して數百艘の兵船をひきいて對馬の國まで來りしを, 筑前守文屋善友を大將として對馬へ行向て是を討しむ則異國人數百騎をうち殺し殘るものは其武具馬具船等をうばひとり此趣を新羅人かへりて申せとておひはなちてかへしける. これより後三韓或はそむきあるひはしたがふ事さだまらずそむきて貢物おこたるといへどもさしてそのとがめなかりしに, 文祿元年太閤秀吉公みずから名護屋迄出馬ありて加藤肥後守清正西小攝津守行長を大將として朝鮮を攻破り永く日本の奴となし玉ふ. 始の程は又年女の貢物を捧るといへ共次第に御宥免ありて我が朝にめでたき御事あり折節必來朝すとなん. 慶長の頃より殊に美美しく奉り物も善美をつくせりとなん.”(『조선인내조물어』, 5a~5b)

신라의 반란을 진압했다는 내용은『일본서기』이후의 일로『扶桑略記』의 기사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부상략기』는 헤이안 시대의 사찬 역사서로 六國史 및 후대의 역사서와 불교 관련 문헌을 다수 인용하고 있으며,『水鏡 』,『愚管抄』등 가마쿠라 시대 역사서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여기에 이른바 신라 해적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부상략기』893년 조에서 894년 조에 걸쳐 熊本, 長崎, 壹岐, 쓰시마 등에 신라의 해적이 침입했다는 기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894년 9월 5일 조와 9월 19일 조에 신라의 해적선 45척에 수백 명의 군사가 쓰시마를 습격하였는데, 당시 쓰시마의 태수였던 文屋善友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220명을 사살하고 선박 11척과 무기 등을 탈취했다. 이때 붙잡힌 포로가 신라에 기근이 들어 정치가 불안정해지자 해적이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오늘날 학계에서도 신라 해적의 존재는 인정되고 있기에[42] 이 내용이 완전한 허구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포로들을 놓아주었다는 기록은 요시토모의 너그러움을 보이기 위해 윤색을 더한 것으로 보이며, 신라가 배반했다거나 공물을 게을리 바쳤다는 내용은 앞의 왜곡된 기록의 연장에서 서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서술이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 정당화될 수 있다.「조선인내조물어」의 논리로 보자면 임진왜란은 삼국시대부터 일본에 복속되었던 조공국의 처지를 망각하고 불손해진 조선을 응징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이 된다. 이로 인해 조선은 다시 일본에 복종하게 되어 매년 조공을 바쳤으나, 막부가 너그러움을 베풀어 조정에 경사가 있을 때만 공물을 가지고 방문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에도시대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가 일본의 자비를 입은 조공사절이며, 고대로부터 일본에 복속된 나라의 사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

42) 石上英一,「古代國家と對外關係」,『講座日本歷史 古代 2』, 東京大學出版會, 1984 이래 통설로 정착되었다. 비교적 최근의 국내 연구로 정순일,「신라해적과 國家鎭護의 神 · 佛」,『역사학보』226, 역사학회, 2015; 성해준,「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해적」,『퇴계학논총』32,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등이 있다.

4. 신공황후 전승과 18세기 일본인의 조선관

이상으로『조선인내조물어』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통신사 교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지식인 사이의 교류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일본의 민중과 통신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은 편이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행록이나 필담창화에서 드러나는 문화교류의 양상을 통해 통신사와 일본 문사의 우호적인 교류가 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조선인내조물어』에서 드러나듯이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본 민중들은 왜곡된 정보를 통해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인식했던 경우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43] 사실 이러한 인식은 민중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에도시대의 유학자들 중에도 삼한정벌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조선을 폄하하는 시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다.

가령 에도 막부 성립 초기에 발탁되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3~1657)은 조선을 예로부터 일본의 '西藩'이라 표현했으며, 이어서 막부에 출사했던 아들 하야시 가호(林鵞峰, 1618~1680)는 신공황후 이래 삼한이 모두 일본에 복종하였으며 통신사는 조공사절이라는 인식을 보인다. 오사카의 상인 學塾인 懷德堂의 당주를 지냈으며 막부에 대조선 외교와 관련해서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던 나카이 치쿠잔(中井竹山, 1730~1804)은 신공황후의 정벌을 들며 조선과 대등한 교린 관계를 맺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 역시 신공황후의 삼한정벌과 임진왜란을 결부시키면 통신사가 조공을 온 것으로 보

43) 이러한 주장은 대체로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통신사가 조공사절이라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70년대 재일동포 지식인들에 의해 촉발된 통신사 연구는 식민사학의 편향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신사가 지닌 문화사절단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통신사 연구도 대체로 이러한 시각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렬도, 안내서, 도감, 필담창화집, 문집 등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간주하는 시각이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통신사가 문명을 전파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당대 일본인 중에는 통신사를 존숭하는 이도 많았지만, 개중에는 조공사절로 생각한 이들도 없지 않았다. 통신사에 대한 일본측의 시각을 일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이다. 양쪽의 입장과 시각을 두루 살펴볼 때 통신사 교류의 실상과 역사적 위상이 좀 더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았다. 소라이 학파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스승의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답습한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44] 물론 이들이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교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를 조공사절로 폄하할 수 있었던 심리적 배경에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 전승이라는 당대에 널리 '역사적 사실'로 간주되었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조선인내조물어』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和漢三才圖會』(1712년 서문) 역시 신공황후 전승이 조선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화한삼재도회』는 테라시마 료오안(寺島良安, 1654~?)이 명나라 『三才圖會』의 체재를 따라 만든 백과사전으로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여년 간 광범위하게 읽혔으며 일본의 지식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서적이다.[45]

『화한삼재도회』 권13 異國人物 편에는 중국, 조선, 류큐 등 일본의 주변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놓았다. 朝鮮 조는 「朝鮮國儒佛始」, 「朝鮮來貢于日本之始」, 「神功皇后征三韓」, 「秀吉公征朝鮮」, 「朝鮮國語」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드러난다. 「신공황후정조선」에는 츄아이 천황이 쿠마소를 정벌할 때 신라를 정벌하라는 신탁을 받았는데 믿지 않고 갑자기 죽었으며 신공황후가 신탁을 믿고 오진 천황을 잉태한 채 삼한정벌에 나섰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10월 3일 타케시우치노 스쿠네(武內宿禰)[46]와 三軍을 이끌고 와니우라(鰐

44) 에도시대 지식인의 통신사 인식에 대해서는 이효원, 「통신사 朝貢使論의 허구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와 현실』 116, 역사비평, 2020, 292~406쪽에 자세하다.

45) 일본 최초의 백과전서로 모두 105권 81책이다. 료오안이 20세 후반에 편찬에 착수하여 30여 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천문, 인륜에서 조수, 초목에 이르기까지 96개의 항목을 두었으며, 중국과 일본의 사물을 평이한 한문으로 설명하고 삽화도 함께 수록하였다. 일본 국내를 실지 답사하여 조사한 정보를 수록하기도 했다. 1748년 무진통신사행 때 조선에 전해졌으며, 이덕무(李德懋), 서유구(徐有榘), 한치윤(韓致奫), 이규경(李圭景) 등 실학자들의 대외인식과 학문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46) 타케시우치노 스쿠네(武內宿禰):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浦)[47]에서 발선하였다. 신라에 이르러 파도가 멀리서부터 나라 안에 이르렀다. 신라에서는 바닷물이 나라 안까지 들어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깃발이 햇빛에 빛나고 북소리가 나라를 진동하였다. 신라의 신하 復以之라는 자가 배를 타고 나와 저항했다. 타케이나다네노 미코토(建稻種命)[48]가 그 배에 옮겨타 배를 부쉈으며, 수백 명을 죽이고 크게 진을 치고 싸웠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황후가 차고 있던 頭槌劒을 뽑아 바로 해를 불러내니 이때 해가 다시 나와 홀연히 미시(未時: 오후1~3시)가 되었다.[49]

신라와의 전투 장면인데 『일본서기』의 삼한정벌에는 등장하지 않는 武內宿禰와 建稻種命, 복이지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신공황후가 두퇴검을 이용하여 해를 불러냈다는 서술은 앞서 언급했던 『팔번우동훈』에서 구슬을 가지고 조수를 마음대로 부렸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여기서는 다른 계열의 설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황후는 활끝으로 큰 바위에 '고려왕[50]은 우리 일본의 개다'라고 썼다. 그 바위가 지금도 남아 있다"[51]라는 서술도 보인다. 이러한 서술은 『일본서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원나라의 일본 침략 이후에 성립된 내용으로 『팔번우동훈』, 『太平記』에 보인다. 『조선인내조물어』에서도 수용하지 않은 극단적 멸시관이 『화한삼재도회』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처럼 신공황후 전설은 당대 지식인

47) 와니우라(鰐浦): 『일본서기』에는 '와니노츠(和珥津)'라 되어 있다. 신공황후가 출전한 포구를 『日本歷史地名大系』(東京: 平凡社, 1979~2004)를 비롯하여 많은 서적에서 對馬島의 鰐浦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松浦拾風土記』(文化 연간(1804~1818) 성립)에 의하면 九州 東松浦半島에 위치한 湊浦의 옛지명인 鰐が浦(지금의 佐賀縣 唐津市 湊町의 항구)로 보아야 한다. 근처에는 신공황후 신라정벌 당시 신들이 모였다고 하는 神集島, 신공황후가 점을 치며 낚싯대를 드리웠다는 神功皇后垂綸石와 龜井昭陽이 쓴 「神后垂綸石碑」, 신공황후를 배사한 玉島神社 등 관련 유적과 설화가 다수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사요히메와 관련한 설화와 유적도 이 지역에 분포해 있다. 『佐賀の傳說』, 日本の傳說38, 東京: 角川書店, 1979에 자세하다.

48) 타케이나다네노 미코토(建稻種命): 당시 尾張國을 다스리던 호족이다.

49) "十月三日率武內宿稱及三軍, 從鰐浦發船, 而到新羅潮浪遠逮國中, 新羅國初以來未嘗聞海水凌國中, 人皆騷, 言未訖, 旗旌輝日, 鼓吹動國, 新羅臣有復以之者, 乃發船以拒之, 建稻種命於船乘移, 蹈割其船, 殺數百衆, 戰大屯. 旣日沒, 皇后拔所帶頭鎚劒, 直招日于時, 日反復忽成未天."(「神功皇后征三韓」, 『和漢三才圖會』, 大板: 大野木市兵衛)

50) 고려왕: 고려는 고구려를 뜻하는데, 고구려만이 아니라 신라와 백제까지도 포함하는 말로 보인다.

51) "皇后以弓箭畵巨石云'高麗王者, 吾日本之狗也.' 其石今尙存焉."(앞의 책)

은 물론 민간에까지 널리 유포되었으며, 백과사전에도 수록되어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상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5. 나가며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내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한반도를 이용해왔고 그 중심에는 신공황후 전설이 존재했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위기 의식을 느낀 일본은 신공황후 전승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립하고자 했고, 몽고 침입 때도 역시 신공황후 전승이 변형된 형태로 소환되었다. 전국시대의 분출하는 힘을 외부로 쏟아내야 했던 임진왜란 때도 신공황후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막부의 압도적인 무력에 의해 장기간의 평화가 지속되었던 에도시대에 신공황후 전승은 통신사행을 매개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지식인과 민중의 의식을 잠식해나갔다. 그리고 서세동점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일본이 대혼란에 빠졌던 메이지 시기에 신공황후는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메이지 초기 征韓論을 주장했던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1833~1907)는 조선은 신공황후 삼한정벌 이래 일본의 속국이며 이러한 역사에 비추어 조선의 무례함을 혼내주고 다시 일본의 판도 안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52] 메이지 11년(1878)이 되어서는 기업 채권의 도안에, 메이지 16년에는 지폐에 신공황후 초상화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신공황후는 제국 일본의 통합의 상징이었으며 조선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이기도 했다. 1903년 발행된 국정 교과서에는 마침내 신공황후 전승이 역사적 사실로 기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신공황후가 武內宿禰와 함께 신라에 이르니 신라왕이 두려워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는데,[53] 武內宿禰와 신공황후가 함께

52) 中塚明, 「日本近代史の展開と朝鮮史像－とくに参謀本部と歴史研究のかかわりについて」, 東京: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1, 1974, 137~154쪽; 中塚明(나카츠카 아키라),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청어람미디어, 2005를 참조.

53) 연민수, 앞의 논문, 20~23쪽; 牧原憲夫, 「文明開化論」, 『岩波講座日本通史』16, 東京: 岩波書店, 1994 참조.

등장하는『화한삼재도회』의 영향이 짐작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설은 점차 '역사적 사실'로 탈바꿈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이 대두되면서 신공황후 전설은 조선 침략의 역사적 근거로 다시 소환되었다. 그것이 빠른 시일에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에도시대 내내 통신사 방문을 통해 심어진, 신공황후 정벌 이래 조선은 조공국이었다는 허구적으로 창조된 역사관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 생각된다.「조선인내조물어」는 이와 같은 '전설의 역사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이른 시기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朝鮮人來朝物語』(와세다대도서관).
『海游錄』(『한국문집총간』 200).
『和漢三才圖會』(와세다대도서관).
연민수 외 역, 『역주 일본서기』 1, 동북아역사재단, 2013.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사, 2011.
_____,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구지현 · 이소나가 가즈키 · 다지마 테쓰오 역, 『조선통신사등성행렬도』, 민속원, 2018.
김시덕, 『일본의 대외전쟁』, 열린책들, 2016.
장진엽, 『계미통신사 필담의 동아시아적 의미』, 보고사, 2017.
_____, 『조선과 일본, 소통을 꿈꾸다』, 민속원, 2022.
허경진, 『통신사 필담창화집 문학 연구』, 보고사, 2011.
김종민, 「18세기 菊屋版 『朝鮮人行列次第』에 대한 고찰」, 『조선통신사연구』 33, 조선통신사학회, 2022.
박려옥, 「조선통신사 행렬 안내서 연구-기쿠야판 안내서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94,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
_____, 「조선통신사와 에도시대 출판미디어」, 『일본어문학』 94, 일본어문학회, 2021.
성해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해적」, 『퇴계학논총』 32, 퇴계학부산연구원, 2018.
연민수, 「神功皇后 전설과 日本人의 對韓觀」, 『한일관계사연구』 24, 한일관계사학회, 2006.
이효원, 「통신사 朝貢使論의 허구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역사와 현실』 116, 역사비평, 2020.
정순일, 「신라해적과 國家鎭護의 神 · 佛」,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2015.

『日本の傳說』38, 東京: 角川書店, 1979.
中塚明(나카츠카 아키라), 성해준 역, 『근대일본의 조선인식』, 청어람미디어, 2005.
中塚明, 「日本近代史の展開と朝鮮史像－とくに参謀本部と歷史研究のかかわりについて」, 東京: 『朝鮮史研究会論文集』11, 1974.
石上英一, 「古代國家と對外關係」, 『講座日本歷史 古代 2』, 東京大學出版會, 1984.
牧原憲夫, 「文明開化論」, 『岩波講座日本通史』16, 東京: 岩波書店, 1994
塚本明, 「神功皇后傳說と近世日本の朝鮮觀」, 『史林』 79卷 6號, 1996.
箕輪吉次, 「通信使の行列と行列記－朝鮮像の變遷」, 『일어일문연구』 72, 한국일어일문학회, 2010.
糟谷政和,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と朝鮮認識」, 『人文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科論集』 22, 2017.

Tongshinsa and The legend of Empress Jingu's Conquest in the Late Choson Dynasty

Lee Hyowon*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mposition and main contents of 『Chosenjinraichomonogatari(朝鮮人來朝物語)』. 『Chosenjinraichomonogatari』 is a commercial publication that was sold to the people who came out to visit when Tongshinsa visited, and it is a pamphlet containing various information about Tsongshinsa.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tents, it can be seen that the Japanese people who greeted Tongshinsa recognized Tongshinsa as a tribute envoy because of distorted historical inform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legend was transformed into a 'historical fact'. After the Meiji Restoration, with the emergence of Jeonghanron(征韓論), the legend of Empress Jingu(神功皇后) was recalled as a historical basis for the invasion of Choson.

Key words : chosenjinraichomonogatari(朝鮮人來朝物語), Tongshinsa, Nihonshoki, Empress Jingu

논문투고일 : 2023년 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3년 2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2월 23일

* Inh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